

광주 AI 기업·투자사, 전략적 만남으로 투자 기회 넓힌다

‘인공지능 Collabo DAY’ 진행...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대 AI기업 미니 투자설명회·1대1 매칭 맞춤형 투자 상담 등 성과

광주시가 지역 내 인공지능(AI) 기업과 투자사 간 전략적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투자 기회 등을 제공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19일 라마다 플라자 총장호텔에서 ‘AI Collabo DAY’를 개최하고, AI 기업과 투자사 간의 협력 강화 및 투자 기회 확대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AI 기업 및 투자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투자 유치 전략 세미나와 AI 기업의 미니 IR(투자설명회), 1대1 투자 상담 등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공유했다.

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관희본부장의 ‘스타트업 기업의 IR을 위한 준비사항’, 스파크랩 김유진 대표의 ‘투자사가 말하는 투자 결정 이유와 매력적인 IR’,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배상승 대표의 ‘기업이 알아야 하는 투자사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하는 알찬 강연도 진행됐다.

특히 AI기업 5개사는 미니 IR 발표를 통해 투자사와 직접 소통하고,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투자사 8개사와 AI기업 25개사는 1대1 매칭 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투자 상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도 냈다.

행사는 자유 네트워킹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로부터 AI 기업과 투자사 간의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AI 기업과 투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AI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이 같은 투자기회 확대사업은 물론 AI 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지원사업은 코디네이팅 운영, AI 전문인력 맞춤형 채용지원, 광주 AI 전문가 자문, 광주 AI 창업캠프 운영 등이며, 이번 ‘AI Collabo DAY’ 행사는 AI기업지원 네트워킹 운영사업 중 하나로 진행됐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과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적 인상주의’ 오지호 특별전 개막

19일 광양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린 기획전 ‘오지호와 인상주의’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 인기

지질·생태교육·동행해설 등 운영...1만3000여명 참여

광주시가 야외 교과서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가치를 알리려고 마련한 지질공원 동행해설, 지오스쿨 등 교육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한해 중심사지구 지질공원센터와 광주호 호수생태원, 시립수목원 등에서 14개의 지질·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만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지질공원의 지구과학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맞춰 열리는 지오스쿨은 지질공원센터에서 이론과 실습을 하는 지질학 심화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6세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오레포트쇼츠는 무등산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지질명소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화산 서유리 공룡화석지에서 진행되는 ‘나도 고생물학자’ 프로그램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크기의 육식공룡 보행렬(일렬로 놓인 발자국) 화석을 직접 살펴 볼 수 있고, 공룡이 달릴 때 발생하는 가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

등 고생물학자들의 현장연구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질공원 동행해설’도 지질공원해설사와 함께 서석대·입석대·광석대·덕산너덜·장불재 등 지질명소를 동행하는 인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방문객들은 지질공원 해설사들로부터 지질학적 가치, 역사 문화 명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질명소 꾸미기, 지질도 퍼즐 맞추기, 내가 만드는 땅지우개, 지질명소 명칭 한자쓰기, 도전! 지오골든벨, 지질시대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지질교육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참가 신청은 무등산권지질공원 누리집(https://geopark.gwang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김용만 광주수목원정원사업소장은 “지질유산은 미적 가치에만 초점을 맞춘 ‘보는 관광’ 영역이라면, 그 안에 숨어있는 학술적 가치를 발굴해 교육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지질공원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야외 교과서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찾아 지질학을 재미있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열심히 공부한 그대 떠나라”...수험생에 전남 체험상품 ‘반값’

전남관광플랫폼 연계 목포 해상케이블카·여수 녹테마레 등 4종

전남도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반값 이벤트를 연다. 이벤트 대상은 전남관광플랫폼 앱과 연계해 전남의 대표 관광 체험상품인 4종이다. 목포의 탁 트인 바다와 다

도해 풍경을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여수 녹테마레, 대나무 숲과 빛의 조화로 독특한 야간 체험을 선사하는 담양 달라이트, 자연 속에서 긴장감 넘치는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강진 쫄트랙 등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전남관광플랫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장에서 수험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벤트는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되므로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다.

전남도는 수험생들에게 전남의 자연, 문화, 레저 등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체험할 특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의 해안 절경, 여수 녹테마레의 감성적 힐링 체험, 담양 달라이트의 빛과 숲의 조화, 강진 쫄트랙의 짜릿한 긴장감을 수험생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한 수험생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전남관광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무안 봉불사에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감 명상, 감정 상담, 에니그램 등 다양한 명상 활동으로 구성됐다. 치유 명상 상담 전문가인 주지스님이 운영을 맡는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23일까지 공개 모집

건축계획·토목 등 전문가 91명

광주시는 “다음달 현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차기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건축위원회는 광주시 건축조례 및 건축계획 분야의 심의·자문 등 역할을 맡고, 당연직 위원과 시민대표 등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102명으로 구성된다.

모집하는 건축위원은 건축계획·설계, 경관·색채·

디자인, 건축시공, 토목, 조정, 도시·단지계획, 교통, 설비·환경·에너지 등 11개 분야 전문가 91명이다. 공모 대상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임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이다. 단 건축위원회 1회 연임자나 광주시 산하 위원회 중복(3개) 위촉된 자는 위촉에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광주시 건축경관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

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박금희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건축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광주시 건축행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